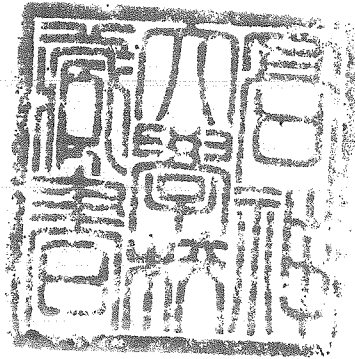


CT
210.6
791211

2001학년도전기
석사학위논문

면죄부와 루터의 95개 논제 연구



한신대학교 대학원 신학과

교회사학전공

김택상



고신대학교



DM00006182

면죄부와 루터의 95개 논제 연구

지도교수 황 정 욱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01년 12월

한신대학교 대학원 신학과

교회사학전공

김택상

김택상의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주심 _____ 인

부심 _____ 인

부심 _____ 인

한신대학교 대학원 신학과

2001년 12월

감사의 글

가장 먼저 제게 신학의 길을 열어주시고 현장속에서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 할 때마다 언제나 함께 해주시고 새로운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를 이끌어서 이 논문이 나올수 있도록 지도해 주신 황정욱 교수님과 그리고 이 논문의 심사를 맡아 주신 두분 교수님께 기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게 처음 목회의 길을 가도록 인도해 주신 김영환 목사님과 저를 위해 기도하시며 항상 목회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는 영지교회 황용대 목사님, 그리고 부족한 저를 가르치시고 이끄시고 계시는 차장현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와 함께 수학하며 서로의 장단점을 너무나 잘알고 또한 서로의 믿거름이 되어 주었던 89동지회와 진보적 신학연구학회 학회원들, 그리고 양산리에서 대학원을 함께 다녔던 모든 학우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언제나 부족한 자식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고 한숨으로 밤을 지새우시는 아버지와 어머니, 장인, 장모님께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 현희와 딸 하영이에게 감사와 사랑을 보냅니다.

저에게 항상 도움이 되고 힘이 되어 주었던 모든 분들께 또한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항상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2001. 10. 8. 부곡에서 김택상

목 차

제1장 연구 목적-----	6
제2장 연구의 범위와 방법-----	10
제3장 회개의 기원과 변천-----	12
제1절 회개의 기원-----	14
제2절 회개의 변천-----	19
제4장 면죄부(免罪符)-----	30
제1절 면죄부와 관련된 개념-----	30
제2절 면죄부의 정의와 기원-----	33
제3절 면죄부의 변천과 종교개혁당시의 면죄부-----	35
제5장 루터의 95개 논제-----	43
제6장 맺음말-----	54
참고문헌-----	57

제 1 장 연구목적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현재의 상황은 자기의 정체성확립을 요구하는 시대이다. 왜냐하면 종교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혹은 정치경제적으로도 우리는 다원화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으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자기자신의 정체성을 올바르게 확립하지 못한다면 다원화된 현재의 상황에서 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고 이리 저리 떠밀리고 표류하게 되어 자기자신의 올바른 삶을 살아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으로서 또한 하나의 생명체로서 자아실현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살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의 우리 나라에는 일일이 계수하기조차 힘들 정도로 많은 개신교 파가 난립하여 서로 자신들이 옳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또 많은 이단종파들 까지도 범람하고있는 실정이다. 이는 모두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복음을 의도적으로 곡해하거나 혹은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과거를 되돌아보고 우리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그 출발점을 빼놓고 생각할 수 없듯이 이 논문에서 필자는 우리 개신교가 시작하였던 그 출발점인 종교개혁에 주목하였으며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되었던 루터의 95개조의 논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또한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에서의 삶이 교회에서의 삶과 같지

못하여 교회에서는 너무나 선한 사람이 교회의 밖에만 나가면 기독교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이 생활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더 나쁜 일을 하는 사람들까지 있어서 선량한 전체 기독교인들에게 손가락질이 돌아오도록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일들은 기독교인들에게 회개와 용서에 대해서 너무 “값싼 은혜”를 강조한 이 땅의 교계지도자들에게도 원인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정체성확립을 위해서 그리고 회개와 용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95개조의 논제와 그 중점 논쟁 대상이었던 면죄(免罪)와 면죄부(免罪符)¹⁾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루터의 종교개혁은 그가 의도하였든 그렇지 않았든지 간에 그의 95개 논제는 16세기의 중세시대에 속권과 교권을 한 손에 움켜쥐고 군림하던 교황과 교회의 체제에 그 잘못을 과감히 지적하고 그 잘못을 고치려했던 그의 노력의 산물이었다. 루터는 잘못된 교회의 관행에 과감히 “아니오!”를 외치고 분연히 일어섰던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으며 우리는 또한 우

1) 여기서 용어의 통일을 위해 면죄증, 혹은 사죄 등의 단어는 모두 가장 잘 알려진 단어인 면죄와 면죄부로 통일하여 사용한다.

사실 면죄부로 번역된 라틴어의 “인둘겐치아”(indulgentia)는 원래 “관용, 부드러움, 자비, 은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후에 “사죄”, “사면”이라는 용어로 쓰이게 되었다. 면죄부라는 용어보다는 사면(赦免)이라고 쓰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타당할 수도 있다. 그 이유는 “indulgentia”(indulgence, Ablass)라는 원래의 의미가 죄를 면해 준다는 면죄부(免罪符)보다는 죄에서 용서를 받고 형벌을 면제받는 사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김문기, 「사면부와 루터의 95개 논제에 대한 소고」, 『역사신학논총』 제2집, 서울: 이레서원, 2000, p. 1.

리의 주님이신 예수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 살도록 요청 받고 있으며 또한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다.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예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사명을 올바르게 감당하는 것이며 하나님 나라를 약속 받을 것이다.²⁾ 예수님께서서는 이 땅에 계실 때 불의한 일을 보시고 참지 않으셨으며 잘못된 관행에 대해서는 채찍을 내리셨다.(예, 예수님께서 불의를 보시고 꾸짖으시는 모습은 성서의 많은 부분에서 나타나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은 성전정화사건을 들 수 있다 마 21:12-16) 그래서 우리는 불의를 보면 분연히 일어서야 하고 또한 한국 기독교 장로회는 이 일을 지난 수십 년간 한국 땅에서 직접 실천해 왔다.

앞에서도 서술하였지만 현재의 기독교계의 상황은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교회의 여러 잘못된 점을 비판하고 올바른 길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 늘 힘쓰고 애써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루터의 개혁정신을 본받아야 할 것이다. 교회는 갱신되었고 갱신되어야 한다. 그렇기에 현재에서 루터의 95개 논제를 연구하는 일은 또한 의미가 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다원화된 세상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바르게 확립하기 위하여 또한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있는 현재의 기독교의 잘못된 모습에 자신 있게 “아니오”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종교개혁 당시의 루터의 95개 논제와 95개 논제의 가장 중

2) 성경은 분명히 힘쓰는 자들이 천국(하나님 나라)을 차지한다고 기록하고 있다.

마 11:12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는 세례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힘차게 나아가고 있나니 또한 힘쓰는 자는 차지하느니라 라고 번역이 가능함)

요한 논점이었던 면죄부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루터의 논제에서 주장하는 면죄부와 가장 관련이 있는 참된회개와 면죄와 면죄부가 구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내용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다시한번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는 거울의 역할을 해줄 것이다.

제 2 장 연구의 범위와 방법

이 논문에서는 루터의 종교개혁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은 이미 많은 논문들에서 서술되었고 또한 논문의 내용과 맞지 않으므로 그 당시의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종교적인 상황에 대한 내용은 논외로 하고 다루지 않기로 하며 면죄부와 95개 논제에 관련된 사항들만 서술하기로 한다.

본 논문에서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된 95개 논제와 면죄부에 관해 살펴보기에 앞서 면죄부와 관련되어 있는 몇 가지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고 95개조의 논제가 나오게 된 시발점인 그 당시 기독교의 회개와 면죄부의 문제에 대해 살펴보면서 95개조의 논제가 왜 제기가 되었고 그 내용은 무엇인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제3장에서는 면죄부를 다루기에 앞서 면죄부가 나오기 전에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회개에 대해서 다루었다. 먼저 회개의 기원이 언제인지 또한 처음의 회개의 관습은 어떠했으며 회개의 관습이 초대교회에서 중세를 거쳐 루터 시대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다루었다.

제 4장에서는 면죄부에 대해 다루면서 면죄부와 관련된 몇 가지 사항들을 먼저 정리하고 면죄부의 정의와 기원, 그리고 종교개혁당시에 이르기까지 면죄부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화되고 변질되어 왔는지, 그리고 루터 당시의 면죄부의 관행은 어떠했는지 살

펴보도록 한다.

그리고 5장에서는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되었던 루터의 95개 논제 전체의 의미와 주장들을 대략적으로 해설하고 나서 비슷한 주제의 논제들을 모아 그 논제들의 내용을 적고 그에 대해 분석하고 서술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6장에서는 결론으로 루터의 개혁정신과 95개 논제의 의의와 의미에 대해 정리함으로 논문을 마무리하였다.

제 3 장 회개(悔改)의 기원과 변천

기독교회의 입장에서 볼 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가장 필요한 것이 인간의 “구원”이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가져야 할 최대의 관심이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하는 문제여야 함을 깊이 인식하여야한다. 예수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일”³⁾은 가장 중요한 사명이다.

달리 말하자면 교회가 죄인의 죄를 용서해야할 임무를 가진다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권한으로 모인 공동체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일이다.⁴⁾ 그러므로 교회에 있어서 인간영혼⁵⁾의 구원은 가장 큰 관심사이며 인간영혼의 구원은 너무나 지대한 관심을 가지는 문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연히 많은 기독교인들은 자신의 영혼구원을 위해 무엇을 하여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 고민 할 수밖에 없다.

중세에는 인간의 영혼이 타락했으므로 구원을 받기 위해 회개(悔

3) 눅 19:10

4) 송현섭, 「죄의 용서와 고백성사」, 『신학전망』, 87호 1989, 서울, p. 24.

5) 여기서 영혼이라는 개념은 흔히 가르쳐지고있는 육체와 영혼의 이분법적이거나 육체와 영혼과 정신의 삼분법 적인 도식의 영혼이 아니다. 이분법적 삼분법적 인간이해는 루터의 생각과도 다르고 히브리인들의 창조신앙과도 다른 잘못된 관념일 뿐이다.

루터의 인간이해에 관해서는 Lewis W. Spitz 서영일 역, 『종교개혁사』,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83, p. 65 이하를 히브리적 창조신앙의 인간이해는 김이곤, 『구약성서의 고난신학』,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1, pp.211-224와 동저자의 『신의 약속은 파기될 수 없다』,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0, pp. 89-92 를 참조하라.

改)해야 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으며 인간은 한평생 죄를 짓지 않고 살수는 없기에 회개가 매우 중요한 관심사로 부상하였고 이러한 회개는 중세시대에 이르기까지 단 한번만 허락되었으므로 대부분 임종시에 거행되는 것이 관례였다.⁶⁾

그러나 이러한 회개가 변화되고 왜곡이 되어 결국 면죄부가 생겨나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⁷⁾ 이제 이 장에서는 회개의 성서적 근거와 회개의 기원과 그 역사적 변천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6) 송현섭 「죄의 용서와 고백성사」, 『신학전망』 87호 1989, 겨울, p. 23.
J.N.D Kelly, 김광식 역, 『고대 기독교 교리사』 서울: 한국 기독교 문학 연구소 출판부, 1980, pp. 243-46, 497-500.

7) 이러한 변화의 내용과 면죄부의 근거가 된 내용에 대해서는 Karl Bihlmeyer, Hermann Tücle, The Middle Ages, Church History Vol. II, Translated by Victor E. Millis and Francis J. Muller, (Westminster: 1963), p. 122. 이하를 참조하라

제1절 회개(悔改)의 기원

회개에 대한 성서적 근거는 요한이 체포된 후 예수께서는 전도를 시작하시며,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마4:17, 막1:14-15) 고 말씀하셨으므로 회개는 그리스도와 요한에 있어서 공통의 소명이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요한의, 또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공통의 소명이라고 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도 똑같은 회개의 소명을 주셨기 때문에 (마6:12, 눅24:47, 행220:21,26:20) 제자들에게는 죄를 사할 권한과 의무가 사명으로 주어졌으며 이는 죄를 뉘우치는 자들의 죄를 사할 권한과 의무와 연관이 된다.⁸⁾ 그래서 루터는 또한 자신의 95개 논제의 가장 첫 번째 명제에서 기독교인의 삶에서 일생을 통해 회개가 일어나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하였다.

회개는 초대교회의 사도시절부터 있어 왔으며⁹⁾ 박해시절에도 회개의 문제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¹⁰⁾ 어느시대에

8) 송현섭, op. cit. p.23

9) 김지훈 「면죄부에 대한 사회학적 접근」 총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p. 36.

10) 박해당시에 황제의 동상에 절을 하거나 로마당국에 성경을 넘겨주는 등의 배교 행위를 한 자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교회가 고백자들과 감독들의 대립에서 일부 고백자들이 변절자가 회개의 표시를 하기만 하면 교회에 다시 돌아올 수 있다고 한 부분에서 이러한 회개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Justo L. González, 서영일 역, 『초대 교회사』 서울: 은성 출판사. 1993, pp. 148-51.을 참조하라.

나 지속적으로 존재했다. 초대교회에서는 중죄를 지은 사람은 다른 동료 교인들과의 교제를 막았을 뿐만 아니라 아예 교회에서 축출하였다.¹¹⁾

다만 죄인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다시 재입회하고자 할 때에는 전체 회중이 운집한 가운데서 공개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노예를 해방시키거나 장기간 금식을 시행하든지 광범위한 구제행위를 하는 등의 보속¹²⁾을 행함으로서 자신이 진정으로 참된 회개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인 후에 허가가 되었으며¹³⁾ 이러한 형태의 회개 제도는 6세기말까지 지속되었다.¹⁴⁾

제 3세기의 초엽에 참회의 규칙이 대략적인 윤곽을 드러내며 모양을 갖추기 시작하였으며 이때까지는 회개가 전적으로 공적인 것이었으며 고백과 참회, 그리고 성찬에 참석하지 못하는 기간, 공식적인 사면과 회복을 포함하고 있었으며 이 모든 과정을 *exomologesis*라고 불렀다. 여기서 공식적인 사면과 회복은 감독이

11) 죄를 짓고서 교회에서 축출되고 다시 성도의 교제를 하지 못하도록 한 부분은 Justo L. González의 앞의 책 149-150면에서 그 내용을 알 수 있다. 또한 Thomas M. Lindsay의 책 229-230면을 참조하라.

12) 보속이란 단어는 죄에 대한 외적인 회개의 뜻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한 타락한 회원이 회중으로 복원되는 데 있어서 남득할 만한 근거를 제시한다는 뜻을 가진 단어이며 이러한 생각은 아주 오래 전 일찍이 터툴리안과 키프리안의 시대부터 사용되었다. (보속과 면죄에 대한 터툴리안의 생각은 *De Pudicitia*, 13.을 참조하라.)

보속이라는 단어는 천주교에서 사용하는 단어이나 *satisfaction*을 단순히 '만족'이라는 단어로 옮기기는 그 의미가 충분히 드러나지 않아 보속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쓰기로 한다.

13) Thomas M. Lindsay, 이형기, 차종순 공역, 『종교개혁사』 서울: 대한 예수교 장로회 총회 출판국, 1993, pp. 229-30.

14) 고영렬, 「루터의 국가관」, 침례신학대학 석사학위논문, 1988. p. 7.

베푸는 것이 정상적인 관례였으나 감독이 없는 경우에는 사제가 베푸는 것도 허용되었다.¹⁵⁾

신약성경에서 회개(μετάνοια)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심령의 일회적인 방향전환이었다.¹⁶⁾ 그래서 고대 교회에서 소위 말하는 "죽을 죄"(우상숭배, 간음, 살인)를 지은 사람들은 교회에서 추방당했다.¹⁷⁾

3세기 경에는 이러한 중죄로 여겨졌던 몇몇 죄들에 대한 교회의 자세가 또한 변화되기 시작하였다. 사실 앞에서 예로든 우상숭배와 간음, 살인은 3세기 이전에는 이론상으로 exomologesis의 수단으로도 죄사함을 받을 수 없다고 취급하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3세기에 이르면서 중죄에 대한 견해도 조금씩 바뀌게 되었다. 중죄도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¹⁸⁾ 그리고 또한

15) J.N.D Kelly, op. cit. pp. 243-44.

16) 바울의 "전향사건"처럼 회개는 악의 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의 방향전환이었기에 그것이 자주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였을 뿐만 아니라 2-8세기에는 교회법 상의 고해성사는 일생에 한번만 받도록 되어있었다.(실례로 오랫동안 스페인에서는 반복된 회개에 대해 신부로부터 사면을 받을 수 없다고 했다). 그래서 고해성사는 주교의 판단에 의해 대부분 생의 마지막 순간으로 미뤄졌다.

자세한 내용은 김문기 교수의 「사면부의 역사와 루터의 95개 논제에 대한 소고」, 『역사신학논총』 제2집 서울: 이레서원, 2000, pp. 6-7.와 옥현진, 「루터의 95개 命題」 광주 카톨릭대학 석사학위논문 1993. p. 24. 그리고 J.N.D Kelly, 김광식 역 『고대 기독교 교리사』 서울: 한국 기독교 문학 연구소 출판부, 1980, pp. 243-245, 497- 500.을 참조하라.

17) 고린도 전서 5:2-13, 로마서 16:17, 데살로니가 후서 3:6,14, 디모데 후서 3:5, 디도서 3:10

Justo L. González, op. cit. p. 148 이하 참조.

18) 키프리안 시대에 성적인 죄는 카르타고에서는 용서받을 수 있는 죄였으며 우상숭배의 죄도 그 이전에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였으나 데키우스 박해 이후에는 용서받는 죄 가운데 포함되었다.

J.N.D Kelly, op. cit. pp. 244-45.

중죄와 그렇지 않은 죄에 대한 생각도 지역과 학자에 따라 조금씩 다른 견해를 가지기도 하였다.¹⁹⁾

또한 어거스틴은 회개를 세가지 범주로 구분한다. 그 첫 번째가 세례보다 앞서는 회개로 이 회개의 결과로 모든 종류와 모든 정도의 죄들이 세례로 인해 사면이 된다. 두 번째는 일반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거의 피할수 없이 저지르는 사소하고 가벼운 죄를 위하여 매일 기도와 금식등의 수단으로 받는 사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세례를 받은 후에 심각한 죄를 지은 경우에 적용되는 공식적인 참회가 있다.²⁰⁾

이상에서 살펴본 바를 토대로 처음의 초대교회 시대의 회개에 대해 정리한다면 몇가지의 특징이 뚜렷이 드러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첫째, 회개는 우선 사적인 고백이 아니라 교회가 공식적으로 죄인을 화해시키는 의례적이며 공적인 회개였다. 둘째, 암브로시우스의 '하나의 세례가 있듯이 하나의 공적인 참회가 있다'는 말처럼 한번만 오직 한번만 참회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것이다. 셋째, 중죄와 소죄를 나누는 큰구별이 있어서 대죄에 한해서만 공적인 참회를 하도록 하였다는 것이다.

19) 중죄와 가벼운죄(소죄)를 나누는 큰구별은 인정이 되었으나 어떤 죄가 공적인 회개를 해야하는 중죄이고 어떤죄가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죄여서 기도와 금식으로 사죄를 받을 수 있는 지에 대한 것에서는 지역과 학자들 간의 의견이 서로 달랐다. 바질은 중죄를 낙태, 살인, 성범죄, 이중혼 등을 중죄에 포함 시켰으나 닛사의 그레고리는 중죄를 우상숭배와 간음, 살인이 세가지로 제한하고자 했으며, 어거스틴은 중죄를 십계명과 사도바울이 '그러한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나라를 갖지 못할 것'이라고 말한 행위로 규정하였다.

Ibid.

20) Ibid.

초대교회 당시의 회개가 준엄하였고 오직 한번만 회개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은 자신이 어떠한 죄를 언제 어떻게 지을 지 모르기 때문에 유일회적으로 주어지는 회개의 기회에 자신의 모든 죄를 용서 받으려는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를 임종시까지 연기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로 인해 공적인 참회임에도 불구하고 임종이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공개가 최소한으로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5세기에 간혹 감독의 결정에 의해 이루어 지던 비밀견책(Correptio Secreta)²¹⁾과 함께 후에 사적인 참회가 등장하는데 있어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21) 당시에 비밀견책은 제3차 톨레도 회의(A.D 589)의 교회법 제 2조에 '가증스러운 무엄함(Execrabilis Praesumptio)'이라고 나타나는 것처럼 혹평을 받기도 했다.
Ibid.

제2절 회개(悔改)의 변천

회개에 대한 성서적 근거는 요한이 체포된 후 예수께서는 전도를 시작하시며,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셨으므로²²⁾ 회개는 그리스도와 요한에 있어서 공통의 소명이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요한의 또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공통의 소명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회개와 참회는 예수와 요한에게 공통된 소명이며 제자들에게도 똑같은 사명을 주시기 때문에²³⁾ 제자들에게 죄를 사할 권한과 의무가 사명으로 주어졌으며 이는 죄를 뉘우치는 자들의 죄를 사할 권한과 의무까지도 연관된다.²⁴⁾

이로 인해 사람의 아들에게 주어진 권한이 제자들에게도 주어진다²⁵⁾. 죄를 사할 권한과 의무는 사실 제자들이 수행해야 할 사명으로 주어졌으며 그 사명이 권한이라는 성격을 띠게 되고 그 권한 행사가 그들의 첫 번째 의무가 된다. 달리 말하자면 교회가 죄인의 죄를 용서해야 할 임무를 가진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권한으로 모인 공동체가 땅에서 할 수 있는 일이다²⁶⁾. 이러한 관행은 초대교회 박해시대 때부터 시행되어져 왔다.²⁷⁾

22. 마4:1 17, 막1:14-15

23. 마6:12, 눅24:47, 행220:21,26:20

24) “죄는 교회의 열쇠를 수단으로 사면된다.” 그 까닭은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교회가 베드로의 인격안에서 그리스도로부터 하늘나라의 열쇠 즉 죄를 매기도 하고 풀기도 하는 권한을 받았기 때문이다.

J.N.D Kelly, op. cit. p. 499.

25. 요20:21-23

송헌섭, 「죄의 용서와 고백성사」 『신학전망』 87호 1989 겨울 p23 참조

26. Ibid p24 참조

초대교회 당시의 회개는 회개, 고백, 보속, 사면의 순으로 이루어졌는데 보속은 마음속 깊이에서부터 잘못을 회개한다는 공개적인 징표였으며 동시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교인 공동체에게 참회자가 참으로 회개했다는 증거로써 인정이 되었으므로 회중으로 하여금 참회자를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들었다. 고백은 회중 전체에게 행했으며 필요한 보속의 양도 회중이 결정했고 재입회 여부도 전체 회중의 의사에 따라야 했다.²⁸⁾

그러나 때때로 이 보속을 완화시키거나 다른 것으로 대처시키는 일이 있었는데 이는 참회자가 병이 들거나 회중이 요구하는 금식이 참회자를 죽음의 위험에 직면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경우에 회중이 요구하는 외적인 통회의 징표를 다른 것으로 바꿀 수 있었고 또는 회중이 요구하는 보속을 전체적으로 수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참회자의 회개의 진지함을 확인하기만 하면 다시금 공동체 안으로 받아들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보속의 바꿈이나 완화야말로 후기 면죄부 판매의 작은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²⁹⁾

보속의 개념은 정벌의 근거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므로 죄를 지은 사람은 세례를 받은 교인이라고 할 지라도 죄에 대해 책임을 지고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에서 발생했다. 죄인은 자신의 죄를 회개와 죄의 고백을 통해 예수그리스도의 공로로 사함을 받았

27) 옥현진, 「루터의 95개 命題」 광주 카톨릭대학 석사학위논문 1993. p. 27.

28) Thomas M. Lindsay, op. cit. pp. 229-30.

옥현진, op. cit. p. 27.

29) Thomas M. Lindsay, op. cit., pp.229-230.

지만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으므로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자신의 죄에 대한 책임을 탕감 받아야 할 필요를 가지게 되었다. 바로 여기에서 교회는 여러 가지 보속을 요구했다.

이러한 회개(悔改)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회중 앞에서 행하던 공고백이 사제에게 개인적으로 고백하는 사고백으로 바뀌게 되었으며 공적인 회개는 점점 그 의미를 상실하게 되었다.³⁰⁾ 그 대신 대 바질리우스(Basilius d. Gr., 329-379)에 의해 헬라의 수도원에서 가르쳐진, 개인적으로 죄를 고백하고 사면을 받는 '개인의 고해(회개(悔改))'(Privatbeichte)가 나타났다.³¹⁾

개인적인 고백은 6세기와 7세기에 아일랜드의 선교사들에 의해 영국과 프랑스에 전해졌다. 이제 '개인의 고해'는 더 이상 수도원 생활의 제도가 아닌 신자들이 죄로부터 해방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 목회 제도가 되었다. 그리하여 회중전체가 부과하던 공적인 보속 대신에 사제가 범한 죄와 고백에 따라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외적인 회개의 징표, 보속을 부과 할 수 있도록 사제에게 일임하였다.³²⁾

그러나 사제에게 전적으로 보속이 일임되자 거기에 따른 기준이 필요하게 되었고 참회자의 죄와 거기에 상응하는 보속의 일람표가 담긴 책이 출판되기에 이르렀다.³³⁾ 물론 죄가 극악한 죄(살인, 근친

30) Thomas M. Lindsay, op. cit. p. 230.

31) 김성태. 「종교개혁은 왜 일어났는가?」, 『사목』 67호, C.C.K. 1980. pp. 24-26.

32) Thomas M. Lindsay, op. cit. p. 230.

상간, 우상숭배.....)일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보속이나 고행이 매우 과중했으며 수년에 걸쳐서 부과되기도 하였다.

이렇게 공고백에서 사고백으로 바뀌어 가자 이와 관련하여 회개는 죽을 죄 뿐만 아니라 경미한 과실에까지 범위가 확대되었다.³⁴⁾ 여러 가지 과실에 따른 회개의 종류와 기간이 수록된 6세기에 만들어진 「리브리 포에니텐치알레(libri poenitentiale)」라는 책이 있다. 이 책에서는 회개의 방법으로 금식, 기도, 구제 그리고 격리, 국외추방 등을 제시하고 있다.³⁵⁾

아주 오랫동안 계속되는 회개는 잡자지 않음, 지속적인 시편 낭독 혹은 이와 유사한 일을 통해 더 짧은 기간의 벌로 대체될 수 있었다.³⁶⁾ 또한 소위 말하는 대속(Redemption)의 가능성도 있었다. 그리하여 어떤 정해진 벌을 다른 것으로 바꿀 수 있거나 돈을 지불함으로써 회개를 다른 사람에게 떠넘길 수도 있었다.³⁷⁾ 예를 들면 금식은 시편 50편을 노래한다든지 구제로 대체할 수 있었다.³⁸⁾

33) Karl Bihlmeyer. op. cit. p. 121.

34) 옥현진, op. cit. p. 24.

Thomas M. Lindsay, op. cit. p. 230.

이전에는 고백이 공적인 자리에서 이루어짐으로서 대죄의 경우에만 이루어졌으나 이후에 사적인 고백으로 바뀌게 됨으로서 마음속의 숨은 죄까지도 사제의 질문에 의해 들추어지게 되어 드러난 죄에 추가 되었다. 이렇게 해서 보속의 범위도 이에 상응하여 확대되었다.

35) De Lamar Jensen, Reformation Europe Toronto: D. C. Heath and Company, 1981, pp. 236-38.

36) Thomas M. Lindsay, op. cit. pp.230-31.

37) Karl Bihlmeyer. op. cit. pp. 121-22

38) 김문기. 「사면부와 루터의 95개 논제에 대한 소고」, 『역사신학논총』 제2집, 서울:이레서원, 2000, p. 5.

7세기부터 보속과 고행을 대체시키는 관습이 생겨났으며 수년동안 금식해야 하는 고행은 그만큼 많은 기도나 시편낭송, 일정량의 구제금 회사, 또는 화폐로 지불되는 벌과금으로 대체되기에 이르렀다.³⁹⁾ 이 같은 새로운 관습은 참회서 혹은 훈련서에 자주 언급이 되었다.

처음에는 부과된 고행을 경감하거나 대체하던 권한이 교회의 회중들의 훈련을 맡은 사제의 수중에만 있다고 생각되었으나 사제들이 이 제도를 악용함으로써 비리를 저지르게 되자 면죄부의 하사권한을 주교의 수중에 의탁하게 되었고 주교들은 여기서 얻어진 돈으로 중세의 여러 성전을 짓는데 소비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교들조차도 자신들의 특권을 남용하여 면죄부의 남용이 심각하게 발생하자 교황은 면죄부의 수여권한은 로마의 주교와 그가 인정하는 대리인에게만 있다고 서서히 독점권을 내세우기 시작하여 나중에는 면죄부 발행 권한이 온전히 교황에게만 일임되기에 이르렀다.⁴⁰⁾

앞서 살펴본 것처럼 초대 교회에서는 참회가 공중 앞에서 이루어졌지만 차차 개인적으로 신부 앞에서 행하는 것으로 대체되었다. 이러한 의식은 수도원으로부터⁴¹⁾ 일반 성직자에게 그리고 드디어는

39) 벌과금 지불단계에 대해서는 독일 민족 법전에도 방위금(Wehrgeld)과 유사한 명목으로 종종 언급되었다. 한 훈련서에 의하면 일정한 죄를 범한 사람에게 10년간의 순례를 떠나든지 아니면 2년간 빵과 물만으로 살든지 아니면 1년에 12실링을 내든지 하나를 택하도록 하였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Schmitz, Die Bussbücher und die Bussdisziplin der kirche을 참조하라.

40) 김문기 op. cit. p. 6.을 참조하라.

Thomas M. Lindsay, op. cit. pp.231-36.

41. 개인적 고백의 흔적은 5세기경 남부 고을 지방의 카시아누스의 여러 수도원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일반 평신도들에게까지 전하여 졌다. 참회가 형벌과 연옥과 지옥에 대한 두려움을 진정시켜준다고 믿었으므로 일반 평신도들의 환영을 받을 수 있었으며 그로 인해 참회가 널리 성행하였다.

처음에 참회의 순서는 회개, 고백, 보속, 사면의 순으로 되어 있었으나 후에 사면과 보속의 순서가 바뀌어졌다.⁴²⁾ 형벌을 제거하는 보속에 대하여 특별한 가치를 부여한 결과 자연스럽게 공적을 이루는 여러 가지 선행으로 그러한 배상을 분류하는데 이르렀다. 즉, 교환, 양도, 할인, 대리, 경감, 교회의 면죄부(免罪符) 판매등으로 발전하였다. 참회의 실행으로 금품을 바치는 것이 허용되었으며 죄인의 참회를 실행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고용하는 것도 허용되었다.⁴³⁾

이러한 새로운 관습은 참회자가 정해진 날짜에 교회를 방문하여 일정액을 회사하는 것으로 대체하기도 하였는데 여기서 사제의 재량으로 경우를 참작하여 일부를 경감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단축은 교회가 참회서에 기록한 규정에 따라서 경감시키는 것이었다. 이것이 바로 면죄부의 기원이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유의 면죄부는 교회가 부과할 권한이 있으면 경감할 권한도 있다고 보아 루터도 그의 공격에서 제외시켰다.⁴⁴⁾

또한 당시의 사람들은 지옥(地獄)보다 오히려 연옥(煉獄)⁴⁵⁾을 두

그리스도교 대사전 편찬위원회 편 『그리스도교 대사전』 대한 기독교 서회 1983 p317

42) Thomas M. Lindsay, op. cit. p. 232.

43) 옥현진. op. cit. p. 25.

44) Thomas M. Lindsay. op. cit. pp.230-31.

45) 연옥사상은 면죄부 등장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으며 중세교회의 속권을 더

려워하였다. 그 이유는 지옥의 영원한 형벌은 회개함으로서 피할 수 있지만 연옥의 형벌은 교회가 지정한 고행에 의하지 아니하면 피할 길이 없다고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이다.⁴⁶⁾ 그래서 사람들은 천년동안이나 계속되는 연옥의 고통에서 어떻게든 피해보기 위해 노력을 하였고 교회측에서는 고행을 대신할 수 있거나 면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였으니 이것이 면죄부 등장 of 동기이다.⁴⁷⁾

그러나 이러한 동기는 루터의 말을 빌리자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사람이 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면죄부는 그릇된 심리상태를 유발하며 죄인이 하나님의 공의에서 비롯된 형벌을 피하려고 한다면 그는 소망이 없는 사람이며 만일 구원을 받고자 한다면 그는 먼저 공포심에 사로잡혀야 하며 하나님은 인간을 살리시기에 앞서 그를 죽여야 하는데 이것이 연옥의 고통이다. 인간이 이로부터 풀려나려고 노력해서 안 되는 것은 이 같은 고통 속에서 구원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평화는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을 때 임하며 이 평화를 소유하지 못한 사람은 교황으로부터 일 백만 번 사죄를 받는다 해도 사실상은 버림받은 사람이

육 강화 시켜주는 도구가 되기도 하였다. 연옥은 선과 악의 중간 지점으로 즉시 천국이나 지옥으로 보내지지 않고 완전히 선하지도 완전히 악하지도 않은 자들의 처소이며 그곳에서 형벌을 받도록 되어있다고 사제들은 설교를 통해 신도들에게 설교하였다. 연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단행본으로는 Jaques Le Goff. 최애리 역, 『연옥의 탄생』, 서울:문학과 지성사, 1995. pp. 542-43.과 같은 저자 김정희역, 『돈과 구원』, 서울:어학사, 1998, pp. 102-104.를 참조하고 논문으로 김지훈 「면죄부에 대한 사회학적 접근」 총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pp. 32-35를 참조하라.

46) 지원용. 『말틴루터』 서울: 대한 기독교서회, 1960, p.80.

47) 지원용. 『루터와 종교개혁』 p. 170.

다.”⁴⁸⁾

파울루스(Nikolaus Paulus)와 포쉬만(Bernhard Poschmann)의 자세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면죄부는 11세기에 시작되었다. 이에 대한 두 개의 사건으로 1035년의 '구제 면죄부'(Almosenablaß)와 1095년의 '십자군 면죄부'(Kreuzzugablaß)가 있다.⁴⁹⁾ 면죄부는 죄에 대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 받는 기한적인 벌에 대해 교회로부터 인가 받은 확고하면서 동시에 법적으로 유효한 약속과 숫자로 정확하게 기술된 규정이 있었다.⁵⁰⁾

중세 초반부터 13세기에 이르기까지 회개(悔改, 콘트리치오 contritio, 사랑에 의해서 일어나는 회개)는 하나님께서 죄인을 사면하시기 위해서 그의 마음속에 넣으시는 것으로 주장되어 왔다.⁵¹⁾ 그러나 13세기의 신학자들은 신앙심이 넘친 회개와 좀더 저급한 가치를 지닌 원인들(특히 노예적인 두려움)로 부터 일어나는 회개 사이를 구별하기 시작했다.⁵²⁾

48) R. H. Bainton. 홍치모, 이훈영 공역, 『16세기 종교개혁』 서울: 크리스천 다이제스트, 1993, p. 44.

지원용. 『말틴루터』, p.78.

또한 루터의 95개 논제중 40. 41번을 참조하라.

49) 김문기 op. cit. p. 5.

50) ibid.

예를 들면 100일간의 면죄부로 100일간에 해당되는 기한적인 벌을 없앨 수 있다. 그러나 나중에는 연옥의 전체 기간(이것은 알 수 없지만)에서 100일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가르쳤다.

51) Paul Joachimesen. Die Reformation als Epoche der Deutschen Geschichte (München:Kaiser Verlag, 1951.), p. 243.

Thomas M. Lindsay. op. cit. pp.230-34.

52) Paul Joachimesen. op. cit. p. 244

Thomas M. Lindsay. op. cit. pp.230-31.

후자를 아트리지오(atritio)라고 하는 데 이 아트리지오는 하나님의 용서를 얻기에는 불완전하지만 참회자의 고백이 사제에게 들리고 사제가 성례전적인 사면을 선언하면 죄는 용서받을 수 있다고 보았다. 그래서 영원한 형벌은 면할 수 있다고 보았다.⁵³⁾

그러나 콘트리치오조차도 현세적인 처벌을 어떻게 할 수 없으므로 아트리지오는 더더욱 현세적인 형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⁵⁴⁾ 그래서 연옥의 고통을 포함한 현세적인 형벌을 피하기 위해서 면죄부는 발매되었다. 그래서 면죄부는 자신이 죄를 지은 것인지 또는 자신의 회개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일어난 것인지에 대해 무관심한 신자들을 강력하게 옹호하는 수단이 되었다.⁵⁵⁾

참회는 그 안에 네 개의 순서를 가지고 있었는데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회개와 이 죄를 사제에게 고백하는 것, 신부의 명령에 따라 교회가 부과하는, 회개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타내는 것, 즉 보속과 사제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언하는 사면이 그것이다.⁵⁶⁾

그러나 이것이 고해 성사로 제도가 되자 사면과 보속의 순서가 뒤바뀌게 되었다. 결국 보속은 이 시점에서 완전히 옛날의 모습과 의미를 잃어버리게 된 것이다. 이 순서가 바뀜으로 해서 더 이상 보

53) 김지훈, op. cit. pp. 39-40.

Thomas M. Lindsay. op. cit. p. 233-234.

54) ibid. p.234.

55) ibid. pp. 234-235.

56) Thomas M. Lindsay, op. cit., p.231.

속은 회개의 외적인 징표나 용서 혹은 사면의 전제가 아니게 되었다.

죄의 고백에 따른 사면은 고백한 죄의 죄책감도 함께 소멸시키는 역할을 했으며 영원한 처벌도 소멸시켰다. 그러나 이 사면으로 인해 죄책감과 영원한 처벌은 사라졌다고 할지라도 죄인에게 곧바로 천국이 허락되지는 않았다. 죄의 사면과 더불어 영원한 형벌은 사라졌다고 해도 그 죄에 대한 합당한 현세적(temporal)처벌은 남아 있었으며 이러한 형벌이 완전히 채워지기 전 까지 죄인은 천국에 갈 수 없었다.

현세적 처벌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었으며 이 지상에서 받아야 할 것과 죽음 이후의 처벌 장소에서 받아야 할 고통이 그것이었다. 사제가 부과하는 고행, 즉 보속은 참회자가 범한 죄에 대한 현세적인 처벌이 되었으며 사제가 적당한 양을 부과하였다면 그리고 참회자가 그 모든 것을 실천에 옮길 수 있다면 그의 현세적 처벌은 모두 끝나고 그의 죄는 완전히 속죄되었다.

그러나 사제가 올바르게 처벌을 계산했다고 그 누구도 확신 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공의가 원하는 양과 정밀하게 부합되도록 보속이 부과되었다고 확신할 수 없으므로 만일 사제가 하나님의 공의가 원하시는 만큼 부과하지 못했다면 나머지의 분량은 연옥에서 받아야 한다는 생각에 사람들은 연옥의 고통을 두려워하며 이 연옥의 고통으로부터 풀려 날 수 있기를 갈망했다. 바로 여기에서 연옥의 고통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면죄라는 사상이 생겨나

게 된다.

자신들의 죄와 회개에 대해 무관심한 신자들도 자신의 죄가 일정한 처벌을 받아야하며 사제에게 고백해야 하는 것임은 잘 알고 있었다.⁵⁷⁾ 그래서 무엇인가 행해야한다는 것을 느끼게되고 교회의 공로의 보화로부터 무엇을 받아야 연옥의 고통까지 피할 수 있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된다.

로마교회는 이러한 문제들을 면죄부가 해결해 준다고 선전하였으며 신자들은 더 이상 면죄부의 구매로 이러한 고민에 빠지지 않아도 되게 되었다. 그래서 아트라치오, 고백, 면죄는 교회가 자신들을 구원해 주는 핵심이 되었다. 이러한 이론은 교회의 도덕적인 타락을 불러왔고 면죄부 판매인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도구로 사용되었으며 자신이 즐기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죄의 처벌을 모면하려는 신자들의 큰 환영을 받았다.⁵⁸⁾

57) 옥현진 op. cit. pp. 25-33.

58) Thomas M. Lindsay. op. cit. p. 233-235.

제 4 장 면죄부(免罪符)

면죄부에 대해 살펴보기 이전에 면죄부의 배경이라고 할 수 있는 “공로의 보화” 개념을 살펴보고 앞장 회개의 기원과 변천에서 다루었던 아트리치오와 콘트리치오 그리고 회개가 제도화된 고해성사에 대한 이해를 가져야 면죄와 면죄부의 이해에 도움이 될 것이다.

제1절 면죄부(免罪符)와 관련된 개념

- 공로의 보화

(Thesaurus meritorum or Indulgentiarum)

공로의 보화(Thesaurus meritorum or Indulgentiarum)라는 개념은 13세기에 형성된 것으로 신자들은 한 몸의 여러 지체라는 사상 위에서 정립된 이론이다.⁵⁹⁾

신자들은 한 몸의 여러 지체라는 생각의 바탕 위에서 교인 각자의 선행은 모든 사람의 공동적인 재산이므로 죄가 많은 사람도 보다 더 성스럽게 사는 형제의 선행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으며 그리스도의 희생은 모든 죄를 씻어 버리기에 충분하다는 생각에서 신학자들은 살아있는 남자와 여자, 그리고 하늘에 있는 성인(聖人)과 마르지 않는 샘물과도 같은 그리스도의 선행이 보관되어 있는 보화의 창고가 있다는 이론을 점차로 확립했다.⁶⁰⁾

59) Thomas M. Lindsay, op. cit. pp.231-32.

토마스 아퀴나스(Thomas Aquinas, 1225-1274)는 자신의 '명제해설'(Sentenzenkommentar)에서 면죄부의 본질, 면죄부를 주고받는 자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 그는 여기에서 교황의 죄 용서의 권세는 그리스도 (요 8:11)와 사도들의 (고후 2:10) 죄 용서의 권세로부터 온 것이며 면죄의 실행은 우주적인 교회의 무오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 보았다.⁶¹⁾

그는 파리대학교 교수인 도미니크 수도회의 초기 스콜라 신학자 후고 폰 샹트 케어(Hugo von St. Cher, 1097-1141)가 전개한 '공로의 보화' 이론을 받아들였다. 13세기에 그의 이론은 면죄의 이론에 결정적인 강화를 가져왔다

후고(Hugo von St. Cher)는 기독교의 근본적인 진리인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근거로 하여 그리스도의 공로는 성인들의 잉여 선행과 더불어 보화의 형태로 교회에 위임되었음을 주장하였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 보화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며 그리스도와 성인들의 공로들은 수량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나아가서 이렇게 쌓인 공로들이 교황의 수중에 있으므로 교황이 신자들에게 얼마든지 나누어 줄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토마스는 면죄의 시여에 대한 전권은 오직 교황에게 있다고 했다. 왜냐하면 교황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즉시 그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기 때문

60) *ibid.*

61) 김문기. 「사면부의 역사와 루터의 95개 논제에 대한 소고」, p.3.

이다. 이로부터 토마스는 연옥에 있는 죽은 사람에게까지 면죄부의 사용이 가능함을 인정했다.

이러한 이론은 16세기에 이르기까지도 제대로 다듬어 지지는 못했지만 일반적으로 다같이 믿고 가르치고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이러한 생각은 로마의 교황에게 영적인 권한을 증진시켜 주는 역할을 하였으며 면죄 이론의 배경을 이루게 된다.⁶²⁾

면죄가 과거에 개 교회에서 개인의 회개와 목회에서 자리를 차지하였다면 이제 면죄는 모든 교회와 이 교회의 머리인 교황의 과업이 되었다. 교황은 '공로의 보화'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교황은 '공로의 보화'가 있다면 "면죄를 집행할 수 있는 권세"(potestas faciendi indulgentias)를 가진 것에 대해 의심하지 않게 되었다.

바로 '공로의 보화'가 면죄의 근거가 되었으며, 이것이 교황의 칙서에 나오게 되기까지 약 100년이 걸렸다. 교황 클레멘스 6세(Clemens VI., 1342-1352)가 1343년 공포한 칙서인 「Unigenitus」이다.⁶³⁾ 그러나 완전 면죄는 클레멘스 6세의 칙서보다 시간적으로 훨씬 앞서 있다.⁶⁴⁾

62) Thomas M. Lindsay, op. cit., p.232.

63) Bernd Moeller, Die letzten Ablasskampagnen. Luthers Widerspruch gegen Ablass in seinem geschichtlichen Zusammenhang, in: Johannes Schilling (hg.), Die Reformation und das Mittelalter,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91, p.56.

64) 김문기. op. cit. p.4.

제2절 면죄부(免罪符)의 정의와 기원

면죄(免罪)를 뜻하는 단어 Indulgence는 원래 로마의 법적 용어로 형벌의 면제나 특사를 의미한다. 면죄(免罪)는 그리스도와 성자들의 공덕에 의해 교회가 죄의 용서로서 세상적인 형벌을 면제해 준다는 것이다. 그리고 면죄를 받았다고 보증하는 증서가 면죄부이다.

이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징벌의 근거로 삼고 죄는 지상에서든 연옥에서든 반드시 징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과 그리스도의 무한한 공로와 더불어 성모 마리아와 성자들의 공덕이 교회에 의해 소유되고 있다는 것, 이 공로와 공덕의 특전을 교회가 교회의 재판권에 의하여 성실한 각 개인에 의해 이룩된 경건한 업적과 기도에 의해 가질 권리가 있다는 신앙, 이 세 가지를 전제로 한다.⁶⁵⁾

1035년 에스파냐(España, 스페인)의 타라고나(Tarragona)지방에 위치한 우르젤(Urgel)교구의 에르멘고드(Ermengaud) 주교가 프랑스 남부 나르본느(Narbonne)의 대주교등 몇몇 주교들과 함께 자기교구에 있는 산 베드로 뽀르텔라(San Pedro de Portella) 수도원 성당을 위하여 판매한 것이 최초의 면죄부였다. ⁶⁶⁾

65. 그리스도교 대사전 편찬위원회 편 『그리스도교 대사전』 서울:대한 기독교서회, 1983, p. 317.

66) 옥현진 op. cit. p.28.

이는 어느 신자가 위의 성당을 방문하여 하나님과 인간을 사랑하는 진정한 마음을 갖고 교회유지를 위해 헌금하거나 빵과 포도주, 금과 은, 기타물품을 기증하는 자선을 실천하며 처벌을 부분적으로 면죄 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일주일 동안의 2-3일 사순절 단식 보속기간도 하루로 단축하여 주었다.⁶⁷⁾

최초의 면죄부가 판매된 후에 1040년 베네딕투스 9세에 의해 면죄부는 정식으로 인가되었다. 면죄부(免罪符)에 대한 공식적 설명에 의하면 면죄부(免罪符)에서 보증하는 면죄는 다만 죄와 관련된 교회법 상의 형벌만 제거해 주는 것이었다. 그러나 면죄(免罪)가 교회법 상의 죄를 사하여 준다는 개념이 잘못된 방향으로 통속화되고 각 교구와 교황청의 예산을 충당하기 위한 방편으로 전락했다⁶⁸⁾. 후에 이러한 면죄부(免罪符)에 대하여 루터는 신학적 근거가 없다고 논박했다⁶⁹⁾.

67) 이때에 '10월 면죄'와 '9월 면죄'가 반포되었다.

ibid.

68. 『그리스도교 대사전』 op. cit. pp. 317-318.

69. 문영남, 「M.Luther 종교개혁의 사상적 배경」 총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2. pp. 14-17.

제3절 면죄부(免罪符)의 변천과

종교개혁 당시의 면죄부(免罪符)

최초의 면죄부가 발부된 11세기 이후 도로, 교량, 축성, 등의 건설이나 개척사업과 같은 공공사업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면죄부가 허용되었다.⁷⁰⁾ 그러나 그후 십자군 전쟁이 면죄부의 발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1063년 교황 알렉산더 2세(Alexander II)는 스페인에서 무어인 들과의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1095년 교황 우르반 2세(Urban II)는 십자군에게 지금까지 한번도 시행되지 않았던 새로운 면죄를 약속했다.⁷¹⁾

이러한 면죄는 지금까지 본적도 들은 적도 없는 새로운 면죄였으며 예루살렘 성지회복을 위해서 회교도와의 전쟁에 참가하는 군인들이 출정하기 전에 고해성사를 통해서 사죄 받은 경우 모든 현세적인 처벌을 사면하는 십자군 면죄가 시행되었다.

여기서 참고로 십자군의 면죄(免罪)에 대해서 말하자면 십자군들은 성지(聖地)를 이교도들에게서 탈환하기 위한 전쟁에 참여하는 것으로 면죄(免罪)를 받았으며 후에는 십자군 전쟁을 후방에서 지원하는 사람에게까지, 1198년 이노첸타우스 3세의 선언 후에는 십자군 전쟁에 재물을 후원하는 사람에게도 그 재물의 양에 비례하여 면죄(免罪)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⁷²⁾.

70) 옥현진. op. cit. pp. 28-29.

71) Thomas M. Lindsay. op.cit. p. 235.

그러나 13세기와 14세기에 이르러 면죄부는 새로운 이론으로 맨 처음 등장했을 때 보다 갑절이나 신자들의 도덕적인 생활을 위협하게 했으며 무절제하게 남발되기에 이르렀다.

새로운 면죄의 관행이 13세기에 덧붙여지게 되는데 이것은 특별하게 지정되고 구별된 성년(聖年)에 이루어지는 면죄였다. 1220년경 성 토마스 벡케트(Thomas becket)의 경우처럼 다른 성년(聖年)을 축하함으로써 이러한 면죄에 대한 준비가 이루어졌고 이것은 특별한 은총이 세기의 전환점에 로마에서 얻어질 수 있다고 전해오는 믿음뿐만 아니라 요아킴 피오레(Joachim von Fiore)의 위기에 대한 예견⁷³⁾에 근거를 두고 있었다.

첫 번째 성년(聖年)면죄는 1300년 2월에 보니파시오 8세에 의해 선포되었으며 많은 사람들이 로마로 향했다. 1343년에는 스웨덴의 성 브리지트(St. Brigit)와 몇몇 사람들이 클레멘스 6세를 권유하여 사람의 평균수명이 너무 짧아서 많은 이들이 다음 세기의 마지막 시기를 살 수 있는 희망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근거로 100년에 한 하는 면죄⁷⁴⁾를 선포하도록 하였으며 이로 인해 1350년이 성년(聖年)

72. 기독교 대백과 사전 편찬위원회 편 『기독교 대백과 사전』 기독교문사 1983. pp. 96-97.

73) Walter Kasper. 박상래 역 『예수 그리스도』, 왜관: 분도 출판사, 1983. p. 480.

그는 성자의 시대, 가건적 위계교회를 대치할 성령의 시대, 복음을 영적으로 해석하는 시대가 눈앞에 다가 왔다고 예언하였다.

74) 면죄부는 보통 두 개의 종류가 있었으며 그 중 하나는 죄인이 받아야 할 벌 전체를 없애주는 완전 면죄부이며 벌의 일부분을 면죄해주는 한정 면죄부가 있었다.

으로 지정되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신 년수인 매 33년마다 성년(聖年)을 선포하는 것이 제안되었고 1470년 바울 2세는 매 25년마다 성년(聖年)을 기념토록 규정하였고 15세기에는 로마에 올 수 없는 사람이라도 어떠한 조건을 충족시키면 이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⁷⁵⁾

그러나 이러한 면죄가 자주 허용되고 면죄부가 남발되는 것에 대해 신실한 비평가의 불만과 비판이 쏟아졌다. 그러나 교회는 이러한 악습을 고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는커녕 재정적인 면에만 중점을 두어 면죄부로 인한 폐단은 점점 커져만 갔다. (교황 레오 10세는 천년, 만년, 심지어 10만년에 해당하는 면죄를 공포하기도 했으며 이 시기에 자주 위조문서들이 예외적인 면죄를 의미한다며 유포되었고 미신적 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에게 상당한 호소력을 가지고 퍼져나갔다.) 또한 13세기 이래로 신학자들은 죽은 자를 위하여 면죄부를 사는 것도 가능하다고 가르쳤다.

14세기의 시작부터 면죄는 교황청의 전쟁을 위해 군인을 징집하는데 사용되었으며 심지어 각종 신앙단체에서까지 면죄부를 남발하여 자기네 단체의 회원뿐만 아니라 여러 외래객을 불러들여 자기네 단체의 교회를 부유하게 만드는 데에도 사용되었으⁷⁶⁾ 성당과 여러 교회당 또는 교회당 안의 낱알의 제단에까지 수여함으로써 면죄

75) 옥현진 op. cit. p. 30.

76) Lewis W. Spitz. 서영일 역, 『종교개혁사』 서울:기독교 문서 선교회, 1983, pp. 27-28. 참조.

가 헌금을 거두는 도구로 전략하는 결과를 가져왔다.⁷⁷⁾

또한 면죄는 특별한 유물의 수집과도 관련을 맺는다.⁷⁸⁾ 특별한 유물이 있는 성소를 방문하는 신자들이 참배를 하고 적당한 헌금을 한다면 연옥에서 놓임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 비텐베르그 에서는 프레드릭(Frederick the Wise)⁷⁹⁾이 많은 유물을 수집해 놓고서 그곳을 참배하고 헌금을 하는 사람은 연옥의 형벌을 면할 수 있다고 하였다.⁸⁰⁾

루터는 종교개혁 이전부터 이러한 관습에 반대하는 설교를 했으며 프레드릭은 신자들의 헌금으로부터 들어오는 수입을 생각하면서 루터의 그러한 설교를 못마땅하게 여겼다.⁸¹⁾ 그러나 루터가 면죄가 헌금을 거두는 수단으로 전략한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면서 설교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실제 면죄부 판매의 수입중 일부가 대학에 전용되었기 때문에 루터 자신도 자신이 반대하는 면죄부의 간접적인 이득을 본 사람이었다.⁸²⁾

면죄는 이처럼 특별한 유물뿐만 아니라 다리나 도로를 보수하는

77) Thomas M. Lindsay. op. cit. pp. 235-36.

78) 옥현진 op. cit. p.29.

79) 삭소니 공국의 지배자 프레드릭 영주는 5000여점에 달하는 유물을 수집했는데 수집품 중에는 베들레헴의 말구유에서 뽑아왔다는 벚짚, 예수님께서 달려 돌아가신 십자가에서 잘라왔다는 나뭇조각, 성 안나의 엄지손가락 등의 진귀한 물품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Lewis W. Spitz. op. cit. p. 28. 참조

80) 옥현진. op. cit. p. 29.

81) ibid.

82) Justo L. González, 이형기, 차중순 공역, 『기독교 사상사』, 서울: 대한 예수교 장로회 총회 출판국, 1991, pp. 52-53.

데에도 수여되었고 병원에도 수여되었으며 중세후기에는 어디를 가든지 면죄부를 만나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였고 부패와 부정과 관련된 금전 착취의 도구였으며 탐욕자의 손에 놓인 도구였다.⁸³⁾

그리고 후에는 면죄부의 금전상의 보수에 대해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었으며 결국 이 문제 때문에 정작 면죄부(免罪符)에 대한 문제점이 새로이 전면에서 부각되기 시작한다.

제후 요아킴 1세(Joakim)의 동생 알브레히트(Albrecht)는 약관인 23세에 마그데부르크(Magdebrug)의 대주교가 되었고 할베르슈타트(Halberstadt)의 관리권도 얻게 되었으며 그는 그 외에도 마인쯔(Mainz) 교구까지도 소유하려 했다. 결국 교황청에 대가를 지불하기로 계약하고 마인쯔교구도 소유하게 되었다.⁸⁴⁾

교황 레오 10세는 알브레히트에게 그의 영토 안에서 면죄에 대한 설교를 해도 좋다고 허가해 주었고 이로 인해 면죄부 문제가 전면에서 부각되기 시작했다. 알브레히트는 자신이 교황청에 지불하기로 한 대가에 대한 보전을 위해 자기 교구 내에서 8년간 면죄부 판매를 할 수 있는 권한을 허가 받았으며 거기서 나온 수익의 절반을 가지도록 되어있었다.

알브레히트의 면죄부 판매의 명목은 베드로 성전의 건축을 위한 것이었지만 이미 면죄부는 이로 인해 상업의 매개물로 전락하여 버

83) Thomas M. Lindsay. op. cit. p. 236.

84) 이창배. 「마르틴 루터의 신학사상과 종교개혁」, 『신학전망』 15호, 1971, 겨울, pp. 458-59.

리고 말했다. 그는 당시의 관행대로 자신의 밑에 면죄 설교가들과 고해신부를 두었으며, 이들에게 설교에 대한 지침서(Instructio Summaria)를 하달하였다.⁸⁵⁾

이들은 면죄부를 사는 순간 그만한 교회의 영적인 은혜를 얻기 때문에 자기 죄를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설교를 하였고 이미 죽은 사람을 위해서도 면죄부를 살 수 있으며 이때도 고해성사나 회개의 필요가 없이 오직 돈만을 가지고 오면 연옥의 영혼이 구제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⁸⁶⁾ 이리하여 종교개혁 직전의 당시에 면죄부가 엄청난 숫자로 팔렸으며 이는 당시의 교인들의 신앙심과 미신적인 요소에 대해 측정을 가능하게 하는 지표가 되었다.⁸⁷⁾

그러나 루터는 자신의 95개 논제중 43번 논제와 탁상담화에서 차라리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면죄부를 사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면죄부를 사는 사람은 면죄부로 인해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위로를 받지 못한다고 역설하였다⁸⁸⁾.

85) 이창배. op. cit. p. 78.

이 지침서는 물론 될수록 많은 돈을 걷는 데에 그 목적을 두었기 때문에 아주 웅변적인 과장이 많았다고 한다. 이로 미루어 보아 알브레히트 주교는 진정한 의미에서 사제직을 성직으로 생각했다기 보다는 세속적인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생각했다고 볼 수 있다.

86) Ibid.

그러나 면죄부에 대한 설교가 전 지역에서 이러한 형태로 진행 되지는 않았다.

87) Lewis W. Spitz. op. cit. p. 28.

당시의 대중 설교가들이 열렬한 호응을 얻고 많은 사람을 동원하였다는 것은 당시 사람들이 영적으로 뜨거운 상태에 놓여 있었음을 보여주며 보다 명확한 주장과 확실한 나팔소리를 기다리고 있었음을 잘 나타내 준다.

88) 루터의 95개 논제중 43번을 참조하라.

중세의 면죄가 시작되기 전 처음 면죄부의 시초라고 말할 수 있는 초대교회의 보속의 대체라는 개념은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방주형 교회론에서 시작이 되어 회개자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고행으로 죄를 짓고 교회에서 쫓겨 난 형제를 다시 교회로 받아들여 구원을 얻을 수 있게 하려는 시도였으나 이것이 점차 변질되어 그 제도가 악용되기 시작한 것이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언제나 어떠한 시대에도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제도를 악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가지려는 사람은 있기 마련이다. 그러나 중세 당시의 카톨릭 교회의 면죄와 면죄부 판매는 시행초기부터 많은 비리의 소지가 있었으며⁸⁹⁾ 또한 많은 비리가 저질러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시행되었다는 것과 그것이 교황 한 사람의 수중에 전적으로 위탁되었다는 것이⁹⁰⁾ 더욱 부패해 질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절대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말처럼 면죄부 역시 교황 한 사람에게 모든 권한이 위임되었기에 더욱 부패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할 수 있다.

즉, 면죄는 보속에 많은 관심을 두면서 자신의 죄에 대한 일정한 갚음을 해야한다는 생각에서 출발하게 되지만 이 생각 자체가 잘못이라기 보다는 이것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채우려 했던 당시의

Martin Luther. 지원용 역 『탁상담화』, 서울: 대한 기독교 서회, 1977, pp. 265-66.

89) 지인성, 「중세 사회운동과 종교개혁」, 『기독교 사상』, 1983. 11월호, pp. 34-52.

90) 김문기. op. cit. p. 6.

종교 지도자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있으며 이에 편승하여 자신의 잘못을 쉽게 용서받으려 한 당시 민중의 미신적인 신앙에도 문제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금전적인 것으로 인간의 죄를 용서하려는 발상과 그것으로 자신의 모든 잘못을 용서받으려는 시도 자체는 너무나 위험한 것이며 물신이라는 또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이는 당시의 장원 경제 체제를 무너뜨리며 새롭게 등장하던 사회체제인 자본주의가 발생하던 시점에서부터 황금 만능주의와 물신사상이 이미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한다.

제 5 장 루터의 95개 논제

루터는 폭풍전야와도 같았던 시기에⁹¹⁾ 고해소에서 그의 고해자들이 면죄(免罪)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음을 깨달았다.⁹²⁾ 그리고 그것의 근원이 대주교의 지도아래 나온 지침이라는 것을 알고 자신이 속해있던 교구의 주교와 교황청 면죄(免罪)위원회에 편지를 발송해 잘못된 폐단을 없애고 면죄(免罪)의 교리를 명백히 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이에 대해 아무런 회답이 없자⁹³⁾ 자신의 생각을 다른 학자들에게도 알리고자 95개의 논제를 발표했다⁹⁴⁾. 그러나 이 95개의 논제를 실제로 비텐베르그성내의 성당 문에 게시하였는지의 여부는 학자들간의 논란이 되고 있다.⁹⁵⁾

95개 논제의 원제목은 “면죄부(免罪符)의 능력과 효용성에 관한 토론”이다. 루터는 이 논제들을 라틴어로 작성했는데, 이 글을 작성

91. Clyde Manschreck, 심창섭, 최은수 공역 『세계교회사』 서울:총신대학 출판부, 1991, p.279

92) 루터가 그의 교구 신자들 가운데서 몇 사람을 불러 놓고 그들의 음탕한 생활을 책망하고 성찬참여를 거부하자 그 때 그들은 도리어 루터에게 대들며 자시들이 산 면죄부를 보여주었다. 이 경험에서 루터는 면죄부의 부당성에 대해 깊이 연구하게 되었다.

지원용, 『말틴루터』, p. 84.

93. 이창배, 「마르틴 루터의 신학사상과 종교개혁」 『신학전망』 15호, 1971. 겨울 p.79 사실 그 당시의 루터의 편지에 답하였다는 기록은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94. 옥현진, 「루터의 95개 命題」 광주 카톨릭대학 석사학위논문 1993 pp8-9

95)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황정욱, 「루터의 종교개혁과 오늘과제」, 『세계와 선교』 134권,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세계와 선교사, 1992, pp. 15-17.와 M. Brecht, Martin Luther: His Road to Reformation, 1483-1521, translated by James L. Schaaf, (Philadelphia:Fortress Press, 1985.), p. 201. 를 참조하라.

한 루터의 의도는 소요를 원하기보다는 지식인들과 학문적인 토론을 통해서 자신의 주장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는데 있었음을 그의 논제들을 읽어보면 알 수 있다.

95개의 명제는 내용상 일반적으로 8개의 부분으로 나뉘는데⁹⁶⁾ 1) 속죄에 대한 규정(1 - 4조), 2) 교황의 사죄권의 한계(5 - 7조), 3) 교회법이 부과한 속죄에 대해 언급하면서 연옥 영혼에 대한 구원문제를 취급(8 - 29조), 4) 면죄와 참회 그리고 사죄문제(30 - 40조), 5) 면죄부의 구입과 면죄시행의 남용(41 - 52조), 6) 면죄설교와 복음설교의 가치비교, 교리의 보화, 면죄부 판매 설교의 과장등(53 - 80조), 7) 면죄부 남용에 따른 평신도의 산발적 질문과 면죄시행에 대한 공박(81 - 91조), 8) 루터의 십자가 신학에 입각한 그리스도교인의 진정한 생활 언급(92 - 95조)으로 나뉜다.

일반적으로 루터의 공격대상은 교황이 아니라 면죄부 판매를 위해 설교하는 설교자들이었다. 이 설교자들의 주장이 교황에게 상처를 입혔다고 루터는 주장하였다⁹⁷⁾. 그리고 평신도들 사이에서 만일 교황이 연옥을 다스리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면 “성당을 짓기 위해 가련한 돈”을 받고 나서야 영혼을 구원해 주기보다는 오히려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원해 주어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불러일으키게 했다(명제 82조).

이와 비슷한 양상으로 루터는 자신의 입을 통하여 평신도의 말을

96. 김성태, 『역사안의 교회』 서울:분도 출판사, 1985, pp. 41-44. 참조

97. 옥현진 op. cit., p.19.

했으며 독일이 로마에 의해 약탈당하고 있다는 그들의 감정을 표현했다. 그래서 루터는 “많은 재산을 가진 교황이 가난한 신자들의 돈을 끌어내기보다는 자신의 돈으로 성 베드로 성당을 짓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는 질문을 하였다(명제 86조)⁹⁸⁾.

사실 95개조문의 내용을 보면 당시 교회의 교리로서도 큰 잘못은 없었다. 오직 그 말투가 지나치고 논쟁적인 표현들이었을 뿐이었다⁹⁹⁾.

루터의 논쟁적인 주장을 요약해 보자면¹⁰⁰⁾

1. 면죄는 단순한 교회적인 처벌에 대해서만 사면하며, 교회는 교회가 부과한 것만 사면할 수 있다. 면죄부는 하나님이 부과한 처벌은 사면할 수 없다.

2. 면죄부는 죄책감을 결코 제거할 수 없다. 교황자신이라도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없다. 하나님이 그 일은 자신의 수중에 보전하셨다.

3. 면죄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처벌을 사면할 수 없다. 그 사면권은 역시 하나님에게만 있다.

4. 면죄부는 연옥에 있는 영혼에게 아무런 효력도 없다. 교회가 부과한 처벌은 오로지 산 자에게만 적용되며 사망이 그러한 처벌을 취소시킨다. 연옥에 있는 영혼에게 교황이 할 수 있는 일은 오로지 기도에 의할 뿐이지 자신의 관할권이나 열쇠의 권한에 의해서 자신

98. Justo L. González, 이형기, 차종순 공역 『기독교사상사Ⅲ』 서울: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1991 p54

99. 이창배, op. cit., p80

100. 옥현진, op. cit., p20

의 힘을 미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5. 참으로 회개하는 신자라면 면죄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용서를 받은 것이며 면죄부는 필요치 않다.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참된 회개를 요구하신다.

6. 공로의 보화는 옳게 규정된 일이 없으며 그것이 무엇이라고 말하기 곤란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그것을 옳게 이해하지 못한다. 공로의 보화란 교황이 권한을 쥐고서 교회가 부과한 처벌만 사면할 수 있는 것이다¹⁰¹). 라고 정리할 수 있다.

루터는 이상의 95개 조항을 통해 진정한 면죄의 의미를 물으면서 참된 회개가 무엇인지에 대해 그의 논박을 시작했다. 그 중 몇 가지를 살펴보자면 아래와 같다¹⁰²).

1. 우리의 주님이시며 스승이신 예수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 (마4:17)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신자들이 전생애 동안 참회를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이 말씀은 고해성사 즉 사제가 직무상으로 수행하는 고백과 속죄로 이해될 수는 없다.

3. 그러나 이 말씀은 단지 내적인 회개만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내적 회개가 육신의 여러 가지 정욕을 억누르지 못한다면 그 같은 내적인 회개는 무가치한 것이다.

36. 어떠한 그리스도인이고 진심으로 자기 죄에 대해서 뉘우치고

101. Thomas M. Lindsay, op. cit. p240

102) 95개 논제의 내용은 지원용 편, 『교회의 개혁자(I)』, 루터 선집 제5권 서울:컨콜디아사, 1984. 의 내용을 따랐지만 일부 수정하였다. (특히 “면죄증”이라는 단어는 면죄부(免罪符)로 수정하였다.)

회개하는 사람은 면죄(免罪)없이도 형벌과 죄에서 완전한 사함을 받는다.

40. 참다운 회개는 형벌을 달게 받는다. 그러나 면죄부에 대하여 관대한 것은 형벌을 등한시하게 하고, 슬피하게 하며, 설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기회를 주는 것이다.

94. 그리스도인들은 형벌이나 죽음이나 지옥을 통하여서 머리되신 그리스도를 부지런히 따르도록 훈계 받아야 한다.

루터는 회개를 면죄의 가장 큰 증거로 보았다. 신자의 삶은 단 한번에 성화 되고 면죄부를 통해 정결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삶 전체는 계속적으로 참회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참회는 독립된 표면적 행위들이 아니라 내면적인 마음의 상태요 그 상태의 이행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므로 회개란 믿는 영과 죄악된 육의 끊임없는 싸움이요, 날마다 새로워지는 일로써, 신자의 평생의 삶을 통하여 계속적인 참회가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죄사함은 참회개를 전제로 하며,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 안에서 발견될 수 있는 것이기에 면죄부와 상관없이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의 참된 보화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의 거룩한 복음뿐이라고 말한다.¹⁰³⁾

루터의 95개 논제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세가지의 주장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그것은 첫째, 참된 회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며, 둘째, 교황의 권세와 권한은 어디까지인가? 셋째, 면죄와 면죄

103) Philip schaff. 엄성욱 역, 『교회사Ⅶ』, 서울:은성출판사, 1994, p.142.

부가 진정 구원에 도움이 되는 것인가? 하는 점들이다.

첫째, 참된 회개가 무엇인가? 루터는 면죄부 논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사항을 지적한다. 면죄는 죄를 사할 수 없으며 죄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기보다는 죄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심리 상태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단지 처벌받기를 두려워하는 죄인에게는 진정한 소망이 아무 것도 없는 것과 같이 그러한 두려움의 상태가 곧 연옥이라는 점이다.¹⁰⁴⁾

이미 죄를 회개한 신자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았으므로 면죄가 필요 없다. 그러나 교황은 이러한 죄인에게 죄에 대한 두려움을 사해 준다는 구실로 면죄부를 만연하게 만들었고, 결국 이것은 죄인이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 오히려 양심이 무디어 지는 결과를 가져왔음을 말한다.

5. 교황에게 부여된 권위나 교회법의 권위에 의해 부과된 형벌 이외에 어떠한 별도 용서할 의지와 능력도 없다.

6. 교황은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였다고 하는 것을 선언하거나 시인하는 것 이외에 어떤 죄도 사해줄 능력이 없다. 그는 그 자신에게 보류된 죄에 한정하여 사죄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런 경우에 있어서 만일 그의 사죄능력이 업신여김을 당하게 될 때 죄는 확실히 그 대로 잔재할 것이기 때문이다.

21. 그러므로 교황이 부여하는 면죄(免罪)에 의해서 모든 벌로부

104) 13조부터 19조에서 루터는 연옥을 죄와 그로 말미암는 형벌로 고통 당하는 죄인의 현 상태로 설명하고 있다.

터 해방되며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선전하는 면죄(免罪)설교가들은 모두 오류에 빠져있는 것이다.

22. 오히려 교황은 연옥에 있는 영혼에 대해서 어떤 형벌도 사할 수 없다. 이 형벌은 교회 법에 따라 현세에서 받아야만 하는 것이다.

33. 교황의 사면을 가리켜서 인간이 하나님과 화해되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특별히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된다.

38. 그러나 교황의 속죄와 권면은 무시될 수 없다. 왜냐하면 이미 말한 대로(제6명제) 그것은 하나님의 사죄를 선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49. 교황의 면죄부(免罪符)는 사람들이 만일 그것에 신뢰를 두지 않는다면 유용하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한 경의심을 잃은 일이 있다면 매우 해로운 일이라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르쳐야한다.

79. 그러나 면죄(免罪)설교 중에 교황문장을 표시하여 세운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동등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독성죄이다.

둘째, 교황의 권세와 권한은 어디까지인가? 루터는 두 번째로 교황이 연옥에 대한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서 죄나 처벌을 감면할 수 있다는 점을 부정하였다. 교황의 면죄로 인해 죄가 사해지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면죄 없이도 참으로 회개하는 사람은 죄책과 처벌을 완전히 감면 받을 수 있게된다. 그 이유는 교황의 권세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권세와 다르기 때문이며 오직 하나님만이 죄와 그 처

벌을 사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이다.

또한 교황의 권세는 일시적으로 지상의 교회에 역사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지속적으로 모든 세상 위에 역사하시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황은 단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이 죄인들을 그의 자비로서 그리스도안에서 용서하신 사죄를 선포할 뿐이다. 교황이 연옥에 있는 자들의 죄와 형벌을 감면할 수 없는 것은 처벌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요, 교황에게는 자기 마음대로 양도할 수 있는 공로의 보화가 없기 때문이다.

교회의 보화들은 교회의 열쇠들이며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공로로 주어진 것들이다.¹⁰⁵⁾ 루터는 죄를 사하는 교황의 권세가 연옥에까지 미칠 수 있다면 왜 연옥에 떨어진 영혼들을 모조리 구원해 내지 않는가¹⁰⁶⁾에 대해서 질문하면서 교황의 착취에 대한 독일 국민의 민족의식을 대변하고 있다.¹⁰⁷⁾

루터는 면죄의 원리가 사도적 사죄의 원리에 기초하고 있다고 말한다. 면죄부에 의해서 자신들의 구원의 확실성이 보장된다고 여기는 것은 교회의 잘못된 가르침이 낳은 오류이다. 면죄부는 결코 구원을 확증하는 것이 될 수 없다. 오히려 면죄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에 실패하고 경외를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가장 해로운 것이 될 뿐이다.

105) 60조.

106) 82조에서 84조.

107) Thomas M. Lindsay, op. cit. p. 49.

셋째, 면죄와 면죄부가 진정 구원에 도움이 되는 것인가? 루터는 면죄부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지적한다.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보다 면죄부를 사는 것이 더 큰 선행이라고 가르치는 것은 사람들을 그릇 인도하는 것이라고 그는 말한다. 따라서 자신의 가족을 돌볼 일이 있으면 면죄부를 사는 대신에 가족을 돌보아야 하며 이것은 교회의 참된 보화는 면죄부를 통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으로부터 나옴을 알게되는 것이다.

면죄의 더욱 중요한 의미는 그리스도의 사죄는 면죄 없이 신자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이다. 회개는 사죄의 원인이 아니지만 면죄나 면죄부가 없어도 신자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의 형벌에서 완전한 사함을 얻을 수 있다. 또한 82조는 면죄부의 판매 근본 동기에 대해 핵심을 찌르고 있다.

돈을 지불했기 때문에 교황이 영혼들을 연옥에서 구해낼 수 있다면 “어째서 교황은 가장 거룩한 사랑과 영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을 위해서 연옥을 다 비우지 않는가?” 교회가 고해라고 부르는 것을 행함으로써 불편한 양심의 짐이 벗겨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근본적인 잘못이라고 루터는 말한다.¹⁰⁸⁾ 면죄부 판매가 연옥에 있는 영혼을 건지고 죄사함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돈을 긁어모으기 위한 도구였다고 그는 반박하는 것이다.

루터의 95개 논제의 내용은 이미 살펴본 바대로 이상의 세가지의 주장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루터의 주장들은 성경을 깊이 연

108) R. Tudor Jones, 김재영 역, 『기독교개혁사』, 서울:나침반, 1992, p. 50.

구하고 구원에 대한 깊은 고민 없이는 나올 수 없는 것들이었으며 이러한 루터의 95개 논제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의 몇 가지의 교훈을 준다.

첫째, 루터는 부정과 불의를 향해 서슴자 않고 “아니오”를 말하였다는 점이다. 세상의 황제나 왕이나 또한 어떤 강한 세력도 감히 반대 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하고 기세 등등한 당시 로마 교회의 그릇된 가르침에 대해 “아니다”를 외친 이 95개 논제가 당시 사회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는 이를 계기로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에서 우리는 잘 알 수 있다.

둘째, 루터의 95개 논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인간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금전으로 좌우되거나 매매될 수 없다는 점이다. 돈 몇 푼으로 인간의 생의 근본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어서도 안된다. 인간의 문제들은 돈에 비길 수 없는 심각한 고귀한 것을 요구하고 있다.

95개 논제의 첫째조항은 회개가 강조되어 있다. 주님께서 “회개하라” 하셨을 때 주님은 신자들의 전 생애가 그렇게 되어야함을 의미하셨다.¹⁰⁹⁾ 어떤 형식적인 변화나 의식적으로 움직이려는 태도가 아니라 마음전체가 포함되는 전인적이며 실존적인 결단을 촉구하는 것이다.¹¹⁰⁾ 그러므로 회개의 실천이 따르지 않는 면죄부를 사는 행

109) 마 3:1-10, 눅3:2-14.

예수님뿐만 아니라 세례요한도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각자 자신들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했으며 자신들의 처지에서 올바른 생활을 할 것을 강조했다.

위만으로는 죄가 사해 질 수 없는 것이다.

110) 지원용. 배한국 편, 『루터와 종교개혁』, 서울: 컨콜디아사, 1993. pp. 167-168.

6. 결론

루터의 종교개혁은 16세기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종교적 상황에서 로마교회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며 신도들 개개인의 영혼과 로마 교회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한 방편으로 시작되었으며 루터는 자신의 신앙과 옳다고 믿는 바를 위해 분연히 일어나서 외쳤고 오늘 우리가 섬기는 교회는 루터의 95개조의 논제로 인해 발생하였던 종교개혁으로 인하여 탄생하게 되었다.

그러나 “교회는 갱신되었고 갱신되어야 한다”는 명제는 오늘에 와서는 거의 유명무실한 명제가 되고 말았다. 기존의 교회들은 모두가 신도들의 영혼에 대한 관심보다는 자신들의 몸집을 불리기에 바쁘고 성도들의 성화와 올바른 그리스도 인으로서 삶에 대해 역설하기 보다는 그저 “값싼 은혜”로 모든 죄가 사해졌고 하나님께 헌금을 많이 드리는 사람이 축복을 받는다는 “돈 놓고 돈 먹기”라는 식의 야바위판이 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신도들의 영혼은 매말라가고 있다. 이것은 새로운 면죄부에 다름이 아닌 것이다.

루터가 자신의 95개 논제에서 진정한 회개와 죄의 용서는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한 것이지만 성도들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함을 진지하게 주장하고 있다. 오늘날의 값싼 은혜를 강조하는 한국의 현실에서 우리가 할 일은 루터의 개혁정신을 이어받아 예언자적인 소명을 가지고 이 땅의 잘못된 관행에 “아니오”하고 말해야 하며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95개 논제는 오늘 우리에게 말한다.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말한다.

또한 양적인 성장과 금전적인 부를 갈망하는 현재의 한국교회를 향해 심판의 메시지와 개혁의 요구를 던져야함을 루터의 95개 논제는 오늘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다.

옳은 일을 위해서는 대세를 역행하는 그 패기를 우리는 루터의 모습에서 볼 수가 있는 것이다. 이것은 예언자적 사명감과 용기에 의하지 않고서는 감히 행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다. 즉 선지자적인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루터처럼 용감히 진리를 외치는 사람이 진정한 크리스천이며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예언자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사람으로 독일의 디트리히 본회퍼나 문익환목사님 등을 실례로 들 수 있겠다. 또한 우리도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루터의 95개 논제는 말하고 있다.

교회는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친교를 나누며 그 말씀을 따라 세상에 나아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공동체를 뜻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공동체가 올바르게 자신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자격을 잃어버리게 된다. 바로 종교개혁 당시의 카톨릭교회가 그러했다.

지금 한국의 교회는 종교개혁 당시의 카톨릭교회처럼 조직이 거대화하고 정당화하려고 애쓰고 있으며 여러 가지 면에서 그 당시와 유사하다. 진정 “교회는 갱신되었고 갱신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루터의 개혁정신을 이어받아 성도들 개개인의 영혼이
메마르지 않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할 것이며 또한 우리가 섬기
는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과감히 지적하고 고치려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나의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갔다. 나의 하나님이 나를 인도했다
기 보다는 오히려 앞으로 가게 쫓았다.”¹¹¹⁾는 루터의 말처럼 하나님
은 그의 몸된 교회가 잘못 되어갈 때 그냥 두고보시지 않으신다. 하
나님이 교회를 새롭게 하신다. 교회가 가장 무능하고 타락의 길에
서있을 때 하나님의 열심이 이것을 이루신다.

루터는 당시 자신이 속해 있던 교회의 잘못을 과감히 지적하였
다. 그는 당시에 그 누구도 반대 할 수 없을 정도로 강대하고 위엄
이 등등하던 로마교회의 그릇된 가르침에 서슴없이 “아니오”를 말할
수 있었다. 불의를 보고 참지 않고 개혁하려는 정신, 하나님의 말씀
에 충실하여 대세를 거스를 줄 아는 예언자적인 정신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길이며 루터의 종교개혁정신을 본받는 것
이라 할 수 있다. 우리가 그의 개혁정신을 올바르게 이어받을 때 진
정 하나님나라의 일꾼으로서 이 땅의 하나님나라 건설에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111) 김지훈, op. cit. p. 59.

----- 참고문헌 -----

1. 단행본

Althaus, Paul, The Theology of Martin Luther, Philadelphia: Forpress Press, 1963.

Atkinson, James, The Great Light: Luther and Reformation, Leicester: The Paternoster Press, 1968.

Bainton, R. H., Here I Stand, New York: Abingdon Press, 1958.

_____, 홍치모, 이훈영 공역, 『16세기 종교개혁』 서울: 크리스천 다이제스트, 1993.

Banaclough, G., The Origin of Modern Germany. Oxford: Busil Black No 11. 1957.

Bernd, Moeller, Die letzten Ablaßkampagnen. Luthers Widerspruch gegen Ablaß in seinem geschichtlichen Zusammenhang, in: Johannes Schilling (hg.), Die Reformation und das Mittelalter,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91.

Bihlmeyer, Karl, Tücle, Hermann., The Middle Ages. Church History Vol. II, Translated by Victor E. Millis and Francis J. Muller, westminster: 1963.

Brecht, M., Martin Luther: His Road to Reformation, 1483-1521, translated by James L. Schaaf,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85.

Cairns, Earl. E., 김기달 역 『서양기독교사』 보이스사 1990.

Canon, Wiliam. R., 서영일 역 『중세교회사』 기독교 문서 선교회
1993.

Clyde Manschreck, 심창섭, 최은수 공역 『세계교회사』 총신대학
출판부 1991

De Lamar, Jensen, Reformation Europe, Toronto: D. C. Heath and
Company, 1981

Eckhart, Meister, About Disinterest, New York: Harper&Row,
1941.

Franzen, A., 최석우 역 『교회사』 (분도총서22권), 분도 출판사.
1985.

George, Timothy, 이은선, 피영민 공역, 『개혁자들의 신학』, 서울:
요단출판사, 1994.

Gilson, E., Reason and Revelatioon in the Middle Age, New york:
Chrles Scriberis Sons, 1966.

González, Justo L., 서영일 역 『중세교회사』 은성 1990.

_____, 서영일 역 『초대교회사』 은성 1993.

_____, 이형기, 차종순 공역 『기독교사상사Ⅲ』 대한
예수교 장로회 총회 1991.

Kaiper, B. K., 김해연 역 『세계기독교회사』 성광 1992.

Kaspar, Water, 박상래 역 『예수 그리스도』, 왜관: 분도 출판사,
1983.

Kelly, J.N.D., 김광식 역, 『고대 기독교 교리사』, 서울: 한국 기독
교 문학 연구소 출판부, 1980.

Knowles, David, The Evolution of Medieval Thought, New York:
Rankin House, 1962.

Le Goff, Jaques, 최애리 역, 『연옥의 탄생』, 서울:문학과 지성사,
1995.

_____, 김정희역, 『돈과 구원』, 서울:어학사, 1998.

Lindsay, Thomas M., 이형기, 차종순 공역, 『종교개혁사 I』 대한
예수교 장로회 총회 1990.

_____, 이형기, 차종순 공역, 『종교개혁사 III』 대한 예
수교 장로회 총회 1990.

Luther, Martin, 지원용 역 『탁상담화』, 서울: 대한 기독교 서회,
1977.

_____, 지원용 편, 『교회의 개혁자(I)』, 루터 선집 제5권
서울:컨콜디아사, 1984.

Mayer, F. E., 지원용 역, 『루터교 신학』, 서울:컨콜디아사, 1985.

Nauert, Jr., Charles G., The Age of Renalssance and Reformation,
New York:University Press of Amarica,
1981.

Neve, J. L., 서남동 역. 『기독교 교리사』, 서울:대한 기독교서회,
1983.

Paul, Joachimesen, Die Reformation als Epoche der Deutscheen
Geschichte, München:Kaiser Verag, 1951.

Postan, M. M., ed., Cambridge Economic History of Europe vol.
I, T.U.P, 1966.

Rich, E. E., ed, Cambridge Economic History of Europe vol. IV.
T.U.P, 1967.

- Schweirt, E. G., Luther and Histimes, Missouri:Concordia, 1950.
- Spitz, Lewis W., 서영일 역, 『종교개혁사』,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83.
- Schaff, P., History of the Christian Church, Michigan: Eerdmans Publisng Company, 1952.
- _____. 엄성옥 역, 『교회사VII』, 서울:은성출판사, 1994.
- Tillich, Paul, 송기득 역, 『폴틸리히의 그리스도교 사상사』, 서울: 한국 신학연구소, 1986.
- Tuder Jones, R., 김재영 역, 『기독교개혁사』, 서울:나침반, 1992.
- Watson, Philips, 이장식 역, 『프로테스탄트 신앙원리』, 서울:컨콜디아사, 1962.
- 고영렬. 「루터의 국가관」 침례신학대학 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8.
- 김문기, 「사면부와 루터의 95개 논제에 대한 소고」, 『역사신학논총』 제2집, 서울: 이레서원, 2000
- 김성식. 『루터』, 서울:지문사, 1960.
- 김성태, 『역사 안의 교회』 분도 출판사, 1985.
- 김운태. 「루터의 개혁사상 형성과정에 관한 사적고찰」 서울 신학대학 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6.
- 김이곤, 『구약성서의 고난신학』, 한국신학연구소, 1991.
- _____, 『신의 약속은 파기될 수 없다』, 한국신학연구소, 1990.
- 김지훈 「면죄부에 대한 사회학적 접근」 총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 독일문화연구소, 『독일문화사대계(1)』, 신지사, 1974.
- 문영남, 「M.Luther 종교개혁의 사상적 배경」 총신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2.

- 송현섭, 「죄의 용서와 고백성사」 『신학전망』 87호 1989 겨울
- 옥현진, 「루터의 95개 命題」 광주 카톨릭 대학 석사학위논문 1993.
- 이형기, 『종교개혁의 신학사상』, 서울: 장로회 신학대학 출판부, 1984.
- 전경연, 『루터 신학의 제문제』, 서울: 대한 기독교 서회, 1978.
- 정현태, 「16세기 종교개혁이 독일교회에 끼친 영향」 대구카톨릭대학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1.
- 조기준, 『신 경제사』 일신사 1972.
- 지원용, 『루터와 종교개혁』, 서울: 컨콜디아사, 1983.
- _____, 『말틴루터』 서울: 대한 기독교서회, 1960.
- _____, 배한국 편, 『루터와 종교개혁』, 서울: 컨콜디아사, 1993.
- 지인성, 「16세기 종교개혁의 사회적 배경에 관한 연구」 한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3.
- 차하순, 『서양사 총론』 탐구당 1992.
- 최근철, 「루터 종교개혁의 신학적 배경에 대한 고찰」 삼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문환, 『근대사회 사상사』 삼영사 1977.
- 그리스도교 대사전 편찬위원회 편 「그리스도교 대사전」 대한 기독교서회, 1983.
- 한국 교회사 연구소, 「한국 카톨릭 대사전」. 1985.

2. 정 기 간 행 물

- 김성식. 「종교개혁의 역사적 배경」, 『신학논단』, 1968. 9.
- 김성태. 「종교개혁은 왜 일어났는가?」, 『사목』, 67호, C.C.K. 1980.
- 노명식, 「종교개혁의 사회정치적 배경」, 『기독교사상』, 1978. 10.
- 송현섭, 「죄의 용서와 고백성사」, 『신학전망』, 87호 1989, 겨울.
- 이창배, 「마르틴 루터의 신학사상과 종교개혁」, 『신학전망』, 15호 1971.
- 주재용, 「16세기 종교개혁의 사회적배경」, 『기독교사상』, 1967. 10.
- 지인성, 「중세 사회운동과 종교개혁」, 『기독교 사상』, 1983. 11 월호.
- 홍치모. 「독일 인문주의와 루터의 종교개혁」, 『신학지남』, 1975. 10.
- 황정욱, 「루터의 종교개혁과 오늘과제」, 『세계와 선교』, 134권,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세계와 선교사, 1992.